



광남일보



**KT-남광주시장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홍보·디지털 전환 협약...이벤트 등 정보 전달도

**장애인 복지 다각화 '일류도시 순천' 실현**
예산 500억 투입...일자리·자립·돌봄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안' 조성 박차**
군, 군민보행·통합관제·등하굣길 안전 등 중점

**광주יל고 김성준, MLB 텍사스 입단**
구단 "월드클래스의 재능·인성 갖춰"

6

9

10

12

조간 제784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윤력 4월 23일)

“금호타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강기정 시장, 행안부에 건의
화재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요구
광산구 ‘피해접수장구’ 설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피해 최소화화하고 근로자 고용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회사·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5·7·15면

강기정 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발생한 큰불로 광주 금호타이어 제2공장의 3분의 2가 전소됐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가동과 피해 복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고, 2350여 명의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사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우선 건의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발생 직후부터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시간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불필요한 염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변 도로를 청소해 분진의 재비산 등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가 사고 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불검출돼 현재 시민들의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



광주 광산구는 19일 구청 별관 송정 보건지소에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이 접수 창구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울러 현장 진화 작업을 한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차원의 노력이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가 적극 나서고 광주시와 정부도 함께 뒷받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주민피해 확인과

보상을 위해 광산구청 1층에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 이날 오전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금호타이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화재에 대응해 안전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 7회 발송, 마스크 2만8500개 긴급 지원, 신속한 임시대피소 이동 결정,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호기관 협력 및 주민 이동차량 지원 등을 시행했다.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금

호타이어 공장의 피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광주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또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은 대량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 위기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대형 화재 광주공장에 전폭적 지원을”

광주경총 성명...고용 불안·부품산업 연쇄 어려움 우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19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역 향토기업이자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공장이 전소되는 등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

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매출 4조5000억원에 달하며 2000여명의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타이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 그간 수많은 공파를 이겨내고 재도약을 준비하던 금호타이어는 물론, 60여개의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수많은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생계 문제로 직결되며 지역 부품·소재산업 전반의 연쇄적 어려움을 야기,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단체는 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오른쪽 첫 번째)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6회 섬의 날’ 스타들과 함께...

8월 완도서 개최...‘천천히 돌아보고, 섬’ 주제

하현우·트리플에스·오세득 등 홍보대사 위촉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에 오는 8월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에 유명가수와 배우, 스타셰프들이 함께하며 섬의 가치를 알린다.

전남도와 행정안전부, 완도군은 19일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6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가수 하현우, 안성훈, 그룹트리플에스(지우·나경), 요리사 오세득, 정지선, 배우 위하준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신우철 완도군수, 홍보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어송라이터 하현우는 “섬은 저에게 늘 꿈처럼 다가오는 존재”라며 “공연을 통해 섬의 가치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로스가수 안성훈은 “섬 지역이나 유소년 야구단 등에 기부하면 숙박권, 콘서트 관람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참여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트리플에스의 지우는 “88일간 88개 섬을 방문한 88명에게 경품이 주어지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말했다고 나경은 “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홍보대사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지선 셰프는 “섬 특산물을 활용

한 ‘해장치유 밥상’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오세득 셰프 또한 “바다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로 섬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홍보대사들은 제6회 섬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행사 기간엔 현장을 직접 찾아 방문객과 소통하며 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올해 섬의 날은 ‘치유의 섬’ 완도에서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열린다. 2019년 제1회(전남 목포·신안) 섬의 날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전남도에서 열리는 뜻깊은 행사다.

행사 기간에는 치유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관, 섬 들레길 걷기, 어린이 섬 치유 아카데미, 섬 발전 학술대회, 섬 주민 참여 행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명창한 전남도 부지사는 “섬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섬의 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전남의 섬에서 진정한 삶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